



제목	A Literary History of Persia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lbex Pub
발행일	1997. 6. 1.
저자	E. G. Browne
출판국가	영국 · 미국
페이지수	2324
ISBN 또는 ISSN	978-0936347660

내용 요약

『페르시아 문학사』는 주제를 고전적으로 분류하고 페르시아 언어와 문학 작품을 표준적으로 집대성한 결과물이다. 그것은 총 4권 2,256 페이지 분량이고, 작성하는데 약 25 년이 걸렸다. 페르시아 문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페르시아 문화의 모든 측면을 담고 있다.

이 책의 저자 브라운(E. G. Browne)은 이란의 선사시대부터 20세기까지를 총망라해서 조사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페르시아 문학사를 집필했다. 문체와 집필 방식의 신선함과 생동감 때문에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과히 놀랄 것이다. 전문가들이 이 책을 독자들에게 추천하는 이유는 문학사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데다가 읽고 있으면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방대한 페르시아 문학사 집필 작업의 중요성과 의미, 지속적인 가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제1권은 인간과 언어, 그리고 페르시아 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역사의 기원과, 사산 왕조부터 우마야드 왕조, 이슬람 황금 시대와 그 이후 1000년까지의 문학사를 문화사와 함께 다룬다. 제2권은 초기 셀주크 시대의 문학사를 다루는데, 12세기 후반의 위대한 시인 네 명을 소개하고 몽골 침략기의 문학을 언급하기 시작한다. 제3권은 몽골침략기, 티무르 제국 시대, 그리고 사파비 왕조 건국까지의 문학사를 다루는데,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티무르 시기의 역사와 산문, 그리고 시인들에 관한 부분이다. 제4권은 ‘모던 타임즈(Modern Times)’라는 타이틀로 1500년부터 1924년까지의 문학사를 다룬다. 사파비 왕조의 문학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4세기에 이르는 페르시아 문학 전반을 아우른다. 브라운의 『페르시아 문학사』가 1902년 최초 발행된 지 100년이 훨씬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이 책은 영어로 쓴 페르시아 문학사를 주제별로 서술한 고전에 속한다.